



보도	2026.6.10.(수) 15:00	배포	2026.6.10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보험제도팀 건전경영팀	책임자	국 장	이권홍	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유명신	(02-3145-7450)
			팀 장	박원규	(02-3145-7474)
			팀 장	변지영	(02-3145-7455)
	계리리스크감독국 계리리스크총괄팀	책임자	국 장	주요한	(02-3145-7240)
		담당자	팀 장	박정현	(02-3145-7242)
	보험검사1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곽정민	(02-3145-7790)
		담당자	팀 장	박수홍	(02-3145-7770)
	보험검사2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정영락	(02-3145-7680)
		담당자	팀 장	이동재	(02-3145-7510)

## 외환시장 관련 보험권 간담회 개최

### I 간담회 개요

-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 및 이에 따른 보험권의 잠재 리스크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
- '26.6.10.(수) 서영일 보험담당 부원장보 주제로 주요 보험회사 (14개사) 재무담당 임원(CFO)과 환율상황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

### 외환시장 관련 보험권 간담회 개요

- 일시·장소 : '26. 6. 10.(수) 15:00~17:00, 생명보험교육문화회관
  - 참석자
    - (금감원) 서영일 보험담당 부원장보(주재), 보험감독국장 등
    - (보험업계) 보험회사 14개사\*(CFO), 보험협회
- \* <생보> 삼성, 한화, 교보, 신한, 미래에셋, 메트라이프, AIA  
 <손보> 삼성, DB, 현대, KB, 메리츠, 흥국, 코리안리

## Ⅱ 주요 당부사항

- 서영일 부원장보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보험권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, 다음의 사항을 당부
  - ① 해외 신규투자의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,
    - 또한, 환율 추가 상승 기대감에 기반한 무분별한 환투기성 외화 포지션 확대는 억제할 필요
  - ② 환헤지 파생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 시 환율 변동성을 높이거나 차환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분산을 유도하고,
    - 해외 사모대출펀드 등 대체투자는 글로벌시장 경색 시 자산 부실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
  - ③ 최근 달러보험 판매는 연초 대비 감소\*하고 있으나,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
    - \* 달러보험(초회보험료) : ('26.1~3월 평균) 2,335억원 → (4월) 1,528억원 → (5월) 1,124억원
    - 소비자가 달러보험을 '환테크'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환율 변동 위험 등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,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

## Ⅲ 향후 계획

- 금감원은 시장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별 외환리스크 관리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, 스트레스테스트(예. 외화유동성) 등을 통해 보험사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예정